

# 무자년 새해를 맞아 모든 회원사 임직원 여러분과 가정에 만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민병준 \_ 한국광고주협회장



작년 우리 광고계는 크고 작은 움직임 속에서 광고의 선진화를 위한 발걸음을 옮겨왔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방송광고판매제도T/F를 구성해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독점판매에 대한 개선의 방향을 심도 깊게 논의하는가 하면, 옥외광고 분야에서는 야립광고가 연말 옥외광고법의 국회 통과로 인해 올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작년 말 방송위원회는 중간광고 확대 허용 방침을 내놓기도 했고, 올해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방송광고사전심의 폐지를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광고주협회는 '광고의 자유'라는 대전제 아래 일관된 목소리를 내어왔고,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는 한걸음씩 변화해 가는 광고환경 안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협회는 작년 회원사 임직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으로 '2007한국광고주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국내 광고모델 계약관행에 대한 연구사업을 진행해서 광고모델과 관련한 과학적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또한 회원들의 광고홍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광고전략, 홍보전략 교육사업도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로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도 협회는 광고제도의 선진화와 과학적인 광고집행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데에 주력할 것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다변화되어 가는 미디어 환경에 맞추어 광고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광고거래질서의 합리화를 이루기 위하여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국내 광고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미국, 일본광고주협회 등과 교류, 협력하여 선진 광고마케팅을 벤치마킹 하는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광고 환경에 발 빠르게 대처해 나아갈 것입니다. 신규사업개발과 함께, 광고주, 매체사, 광고회사가 서로 윈윈하며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광고주협회가 창립2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회원사 없이는 협회도 없고, 회원사의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만 협회도 그 존재 의미를 갖기에 올해는 무엇보다 회원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여 모든 사업에 있어 회원사의 이익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다짐을 새로이 해봅니다.

올해 역시 우리경제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될 조짐이고, 지난해 4.8%의 성장에 이어 올해도 5%의 성장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행스러운 것은 새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기업의 규제완화와 기업활동 보장의 필요성이 가시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보장될 때 비로소 자유시장경제의 정착과 국가경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8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화목이 함께 하시고, 밝은 희망과 웃음이 함께 하는 풍요로운 한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KAA**

- 07 신년사
- 08 | 특 집 I | 인터넷광고  
인터넷광고를 위한 가이드 라인 | 이명신  
광고주간이설문, 2008년 인터넷광고 성장세 지속
- 12 협회 소식
- 13 | 특 집 II | 새정부에 바란다  
방송광고독점판매대행 해소 시급  
방송광고사전심의 폐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KAA **저널**



Voice of Korea Advertisers 2008 01· 02

- 18 KAA 진단  
방송광고 요금체계의 허와 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업계 목소리 반영해야
- 25 해외소식  
서구 마케터들의 아시아 시장 도전기
- 30 회원사탐방  
동아제약 홍보실 광고팀
- 32 내가 좋아하는 광고  
마음까지 전해주는 광고가 좋다 | 김진수
- 34 KAA광장